

# 주간 테러동향

## Weekly Terrorism Trends

'21.03.12(금)

###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 유럽

- 프랑스 파리 교사 '참수 테러', 발단은 13세 학생의 거짓말
  - 3.8 佛 수사당국은 '교사 참수테러' 조사 결과, 피해 교사의 학생이 본인 잘못에 따른 정학처분을 위장하려고 "이슬람 비하 교사와 다뤄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짓말을 해 이에 격분한 부친이 SNS에 교사의 신상을 공개하여 극단주의자의 잔혹극을 유발했다고 발표
- 伊, '15년 '파리 연쇄테러' 연루 용의자 추가 체포
  - 3.8 伊 현지언론은 수사당국이 '15년 프랑스 파리의 공연장·축구장 등에서 발생한 '파리 연쇄테러'(사망 130)와 관련, 당시 ISIS 테러범들에게 필요한 위조서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알제리인 「에트마네 투아미」(36세)를 체포하여 조사중이라고 보도
  - \* 同人是 출입국 허위서류 소지 혐의로 '19년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
- 스웨덴 법원, ISIS 가담 자국 여성 대상 징역 3년 선고
  - 3.8 스웨덴 법원은 '14년에 아들(2세)과 함께 시리아로 건너가 ISIS 조직원과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17년 쿠르드軍에게 붙잡힌 후 본국으로 송환된 여성에게 '아이를 전쟁터의 위협에 노출'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 미주

- 美 국방부, 미군內 극단주의자 잠입 경계
  - 3.2 美 현지 언론은 국방부가 의회 요청에 따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극단주의 세력이 현역 군인을 포섭했거나 극단주의자가 입대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同 군인들과 백인 우월주의 등 극단주의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
  - \* 국방부는 '20.1.6 의사당 난입 시위대에 전·현직 군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

○ 美 FBI, 미국내 '자생적 테러' 급증 경고

- 3.3 美 FBI 「레이」 국장은 상원에서 미국내 자생적 테러와 관련되어 FBI가 수사중인 테러범 수가 지난해 말 1,400명에서 현재 2,000명으로 40% 이상 급증했으며, '17년 이후 인종차별주의를 바탕으로 한 폭력적 극단주의자 테러는 3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경고

○ 美 FBI, 극단 세력의 의사당 난입사태 '국내 테러'로 규정

- 3.3 美 FBI 「레이」 국장은 지난 1.6 발생한 「트럼프」前 대통령 지지자 등 극단주의 세력의 연방 의사당 난입사태를 '국내 테러'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국내 '폭력적 극단주의자'를 ISIS 및 기타 테러 단체와 동등한 최상위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

## 중 동

○ 예멘 후티 반군,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에 드론 공격

- 3.8 현지언론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동부주의 아람코 석유시설에 대해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으며, 최근 미국이 후티 반군을 '테러단체 지정'에서 철회한 이후 사우디에 대한 공격이 증가했다며 미국의 對중동정책을 비판

## 아프리카

○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차량 자폭테러'로 20여명 사망

- 3.5 AFP통신은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항구 인근 식당에서 차량 자폭 테러가 발생해 민간인 포함 최소 20명이 사망하였으며, 테러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없으나 「알카에다」와 연계된 현지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市 소재 軍병원 겨냥 복합 테러

- '17.3.8.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소재한 '사르다 다우드 칸' 軍병원에서 무장단체가 자행한 테러가 발생해 100여명 사망·50여명 부상
  - \* 아프간 軍은 사건 발생 7시간만에 테러범들을 제압
  -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해당 軍병원에서 수개월간 근무한 이력의 인턴 2명중 한명이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의사로 위장해 침입한 5명의 무장단체원들의 활동을 지원
    - \* 테러범들은 여성과 아이들에게 조차 직사거리에서 두부에 총격을 가하는 등 잔학행위 자행
- ISIS의 선전매체인 「아마크 통신」은 테러범과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하며 자신들의 소행임으로 간접 시사했으나 「SITE 인텔리전스 그룹」\*은 실제 테러 주체를 은폐하려는 연출일 뿐이라고 분석
- 「SITE 인텔리전스 그룹」의 분석과 유사하게, 아프간 정부 관계자 역시 '하카니 네트워크'(HQN)가 그간 자행했던 테러 방식과 유사한 점을 들어 해당 테러조직의 연계성이 의심된다고 발표
- 한편, 아프가니스탄 주둔 美軍 사령관 「존 W.니콜슨 주니어」는 해당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범죄'라고 비난하는 한편, 아프간 대테러부대의 활약에 "우리는 최고 찬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언급

< SITE 인텔리전스 그룹(SITE Intelligence Group) >

- (개요) 美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소재하고 있으며 백인 우월주의 및 지하디스트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고 테러단체 통신망에서 자살폭탄 테러 등 위협에 대한 메시지, 비디오, 사전 경고 등을 수집해 사법당국에 전파



\* 이스라엘 출신 분석가 Rita Kats가 공동설립 및 운영

- (협력기관) 美 사법부, 대테러 부대, 정보기관 등 공공기관 및 NGO 싱크탱크 및 학술기관 등
- (주요실적) '14.9.2 美-이스라엘 언론인 「스티븐 소틀로프」가 참수된 영상을 ISIS가 공개하기 前 입수하여 협력기관에 배포